

統一新羅時代의 建築

金正基

一、

統一新羅時代 建築 가운데 寺刹建築의 樣相을 살피려면 그 對象으로서 寺刹의 大部分이 地下에 埋沒된 狀態로 遺存하는 寺刹址에서의 여러 建物 遺構를 擇하여 考察할 수 밖에 없다. 당시의 寺刹建築으로는 많은 數의 石塔과 얼마간의 石造浮屠를 비롯하여 石造建築이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別途로 考察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取扱하지 않는다.

現在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되고 그 후 廢墟된 寺刹址는 慶州市內에서 四〇餘個所나 되고, 그 가운데 原來의 寺名이 짐작되는 遺址도 三〇個所나 되며, 全國적으로는 一〇〇個所가 넘는 遺址가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寺刹址들의 大部分은 아직 本格的인 發掘 調査가 實施되지 않아 그 遺構의 家相을 거의 모르는 形便이다.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된 寺刹의 遺址 가운데 지금까지 發掘調査된 것은 全國적으로는 一〇餘個所에 達하나 이들의 大部分은 극히 部分的인 調査였다. 本格的인 發掘調査가 實施된 寺刹址는 感恩寺址、望德寺址、高仙寺址、千軍里廢寺址 및 佛國寺 遺蹟들이며, 이 가운데 望德寺址의 發掘調査報告는 아직 發表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비록 古新羅時代에 創建되기는 하였으나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서 伽藍配置 形式을 크게 바꾸게 된 皇龍寺의 關係遺構와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되고 發掘調査에 의하여 遺構 實態를 잘 알 수 있게 된 寺刹에 대하여 各建物の 基壇 形態와 그 築造方式 및 伽藍配置等에 대하여

二、

살펴보고 이들 相互間의 比較를 통하여 그 變化過程과 時期的인 關連等을 考察함으로써 이 時代의 寺刹建築의 一面이나 마 함쳐보도록 하겠다.

皇龍寺·皇龍寺는 五五三年(新羅 眞興王一四)에 月城 東쪽에 新宮을 造營하고 있을 때 그 곳에서 黃龍이 出現하였기에 宮을 寺刹로 바꾸어 五五六年에 工事を 完了하여 皇龍寺로 이름지었다는 國利이었다. 이때에 完成된 伽藍이 創建伽藍이며, 그 후 五七四年(眞興王三五)에 金銅 丈六尊像이 鑄造되고, 그 一〇年後인 五八四年(眞平王六)에 아마도 이 巨大한 丈六尊像을 安置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重建 金堂^①을 完成하게 되었다. 이때에 金堂 重建 뿐만 아니고 伽藍全體에 대한 再整備 즉 重建伽藍法事가 計劃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計劃된 重建伽藍은 쉽게 完成되지 않은 채 統一新羅時代로 넘어오게 되고 伽藍 形式의 一部가 變更되어 鐘樓와 經樓가 木塔 南쪽 左右에 配置되게 된다. 그 후 鐘樓와 經樓의 建物 平面이 變하게 되고 中門과 講堂의 平面 形態도 變化하였고 高麗 高宗二五年(一一三八)에 全伽藍이 燒盡된다. ② 따라서 이 變形된 伽藍配置 즉 鐘、經樓의 配置와 鐘、經樓 建立에 따라 移動 또는 改造된 中門이나 南廻廊에 의하여 形成된 伽藍은 統一新羅時代 寺刹建築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要素를 갖고 있는 것이다.

皇龍寺址에 대한 發掘調査는 遺蹟의 整備 淨化를 위한 資料蒐集의 目的으로 一九七六年에 시작되어 一九八三年에 完了되었다. 一九八四年부터는 寺域 周邊의 遺構에 대한 發掘이 계속되고 있다.

感恩寺·感恩寺址는 慶北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에 있는 東海岸에 臨한 山麓 臺地 위에 있다. 寺址에는 東、西三層石塔과 金堂基壇 遺構가 比較的 잘 남아 있었다.

感恩寺는 六八二年(神文王二)에 完工된 寺刹임이 『三國史記』나 『三

國遺事)에 記錄되어 있으나 그 開工은 父王인 文武王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는 一九五九年에 金堂址를 中心한 그 周邊에서 實施되었다. 이 調査에서 金堂 建物 바닥 밑에 空間을 設置한 石床遺構가 確認되었고 金堂基壇 左右에는 東, 西廻廊에 連結되는 翼廊이 있었음이 確認되었다. 이 翼廊이 確認됨으로서 우리나라 雙塔式伽藍의 基本形式이 金堂 左右에 翼廊이 設置되는 形式임을 確定되게 되었다. 近來에 와서 이 寺址 全域을 整備 淨化하려는 事業이 確定되어 周邊의 民家を 撤去하고 全寺域에 대하여 一九七九年에서 一九八〇年 사이에 二次에 걸쳐서 再發掘되었다. 이 結果 講堂 左右에는 北廻廊이 設置되지 않고 獨立된 別個의 建物이 配置되었던 事實과 金堂 下部 空間施設로의 出入을 위한 穴口가 確認되었고, 東, 西廻廊 바깥에서 몇몇 建物址가 發見되기도 하였다. 또 이 發掘에서 發見된 靑銅製飯子에는 陰刻된 銘文이 있어 感恩寺가 高麗 恭愍王元年(一三五二)까지는 存續하였고, 當時 우리나라를 자주 侵犯하던 倭賊들이 奪取해 간 物件名을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資料를 얻게 되었다.

望德寺·望德寺址는 慶州市 排盤洞에 있으며, 四天王寺址의 南南東約三〇〇m의 田畓中에 있다. 寺址에는 地面이 조금 隆起된 곳에 金堂址가 있고 그 南쪽 左右에 東, 西木塔址가 있어 地表에서 잘 觀察된다. 中門이나 廻廊 등의 存在는 地表觀察로는 알 수 없고 西南쪽 松林 속에 一基의 幢竿支柱가 남아 있다.

望德寺는 六八四年(神文三)에 完工된 寺刹이며 그 創建緣起는 四天王寺의 緣起와 아울러 (三國遺事)③에 자세히 記錄되어 있다. 이 記錄에 의하면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후, 唐 高宗이 高句麗와 百濟의 故地를 侵犯하자 이를 막으려는 新羅를 再次에 걸쳐 侵攻하였으나 失敗하였다. 이 失敗의 原因이 新羅가 四天王寺에서 施行하는 秘法에 의한 것임을 感知하여 禮部侍郎 樂鵬龜를 慶州에 派遣하여 그 眞疑를 調査케 하니, 新羅에서는 四天王寺 近處에 새로 寺刹을 急造하여 이를 唐使에 보

여 唐皇室의 萬壽를 祈願하는 절이라고 속여서 돌려보냈다. 이때 創建한 寺刹이 望德寺라고 한다.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는 一九六九年에서 七一年 사이에 三次에 걸쳐 實施되었으나 그 調査報告書는 아직 發刊되지 않았다.

高仙寺·高仙寺址는 慶州市街 北쪽 人工湖인 普門池를 지나 暗谷洞의 깊은 溪谷의 좁은 平地에 있었다. 寺址는 德洞碑 建設에 따라 水沒되게 되어 一九七五年에 寺址에 남아 있던 石塔은 慶州博物館 庭園에 移建하고, 寺址는 發掘調査하여 그 實態를 記錄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 發掘 調査에서 우리나라 古代 伽藍配置 形式에 새로운 類形인 金堂院과 塔院이 各各 獨立된 空間으로 設置되고 이 두 空間이 東, 西로 나란히 並置되어 南向하는 形式이 確認되었다.

高仙寺 創建 實年代나 그 緣起에 대해서는 傳해진 바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의하여④ 元曉大師가 高仙寺에 居住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大師가 入寂한 六八六年(神文王 六) 이전에 創建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 寺址에 남아 있던 三層石塔의 規模나 形式이 感恩寺 東, 西 三層石塔과 恰似한 점으로 보아도 그 時期에 創建된 寺刹임을 짐작할 수 있다.

千軍里廢寺·千軍里廢寺址는 普門池 北쪽 明活山城下의 耕作地에 있으며, 寺址에는 一九三八年에 復原 再建된 東, 西 兩塔이 남았다. 이 石塔 再建時 實施된 寺域에 대한 發掘調査로 雙塔式 伽藍配置로 된 寺刹址임이 밝혀졌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伽藍의 形式이나 金堂基壇의 樣相 및 石塔의 모습 등으로 보아 八世紀 中葉 金大城에 의해 重創된 것으로 傳하는 佛國寺보다 조금 앞서는 時期에 建立된 寺刹의 遺址로 짐작된다.

佛國寺·佛國寺는 慶州市 佛國洞 吐含山麓에 있으며 八世紀 中葉 金大城에 의하여 重創되었다고 傳하는 寺刹이다. 重創當時의 木造建物은 壬辰倭亂으로 燒盡되고 그 후 一部 建物은 復原되었으며 石塔이나 石橋를 비롯한 石造遺構는 重創當時의 것이 남았다. 一九六八年에는 壬亂

후 復原되지 못했던 無說殿을 비롯한 殿廊들의 復原工事が 計劃되어 이를 위한 資料蒐集을 目的으로 境內遺蹟의 發掘調査가 實施되었다.

發掘調査에 의하여 佛國寺 泛影樓의 雲形石柱와 對稱이 되는 東쪽樓閣의 石柱가 石窟庵 主室 앞 雙石柱와 똑같은 意匠으로 된 八角石柱임이 밝혀졌다. 또 大雄殿 西北方에 있는 毗盧殿基壇이 大雄殿이나 無說殿, 極樂殿 등의 基壇보다 오래된 形態이며, 東北쪽에 있는 觀音殿基壇은 이들보다 좀 늦은 時期에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다.

三、

위에서 概觀한 統一新羅時代에 建立되었고 그 遺址가 發掘調査된 寺址들의 主要建物遺構를 對象으로 基壇部의 構成과 平面構成의 樣相을 分類整理하여 比較考察의 資料로 삼도록 하였다. 基壇部에 있어서는 基壇形式과 基壇構築土의 樣相을 살피고 平面構成에 관해서는 主要建物の 平面의 樣相과 伽藍配置形式으로 갈라서 整理토록 한다.

〔基壇構成〕

基壇形式

金堂基壇·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된 寺刹 遺址 가운데 發掘調査되어 金堂基壇의 形式을 比較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感恩寺와 高仙寺, 千軍里廢寺들의 遺構이며 佛國寺의 金堂에 該當되는 大雄殿과 金堂에 準하는 極樂殿의 基壇은 完全한 形態로 地上에 露出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感恩寺 金堂基壇은 完全한 二重基壇이었고, 高仙寺와 千軍里廢寺의 金堂基壇은 單層基壇 外周에 步廊狀의 敷塼施設이 있었으며, 佛國寺의 大雄殿과 極樂殿 基壇은 典型的인 單層基壇이었다.

感恩寺 金堂基壇의 下層基壇은 높이 二九cm, 幅 三六cm 정도의 斷面이 長方形인 長大石으로 만들어졌으며 地臺石, 面石, 甲石의 區別이 없었

다. 下層基壇 上面에는 上層基壇의 地臺石과 下層基壇石 사이에 幅 三二cm, 두께 七·五cm 정도의 板石을 깔고 있었다. 上層基壇은 上面 外角部에 한단의 隅임이 있는 地臺石 위에 面石을 세우고, 面石 위에 甲石을 올린 것이며 復原된 上層基壇의 높이는 一·一五m 정도였다. 이 上層基壇의 甲石은 地臺石의 경우와 같이 네모진 長大石의 下面 外角部에 한단의 隅임이 있고 上面을 平坦하게 治石한 것이 一般的인 形態이나 여기서는 一九八〇年の 再發掘時 發見된 甲石을 보면 上面 外角部에도 孤形의 돌담을 彫刻한 特異한 形態였다. 基壇의 規模는 下層基壇이 東西約二四m, 南北約一七·四m이고 上層基壇은 東西約二二·六m, 南北約一六·一m였다.

基壇에는 前面과 後面 中央에 舊地表에 到達하는 石階段이 있고, 兩側面 中央에는 翼廊基壇 上面에 到達하는 조금 작은 石階段이 設置되어 있었다. 이들 階段 側石의 構成은 地臺石과 三角形의 面石 및 그 위에 傾斜지게 놓여지는 甲石이 各各 別石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高仙寺 金堂基壇은 東西 一七·三m, 南北 一五·三cm로 復原되는 單層基壇이었다. 基壇石으로는 上面 外角部에 한 단의 隅임이 있는 通例的인 形態의 地臺石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 基壇은 地臺石위에 面石과 下面 外角部에 한 단의 隅임이 있는 甲石이 놓이게 된 一般的인 形態의 石造基壇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 石材는 發見되지 않았다. 그러나 基壇 上面에 原位置를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礎石 一個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礎石의 位置로 보아 基壇의 높이는 約六〇cm였을 것으로 判斷되었다. 基壇 地臺石 外周에는 長方塼과 方塼을 三列 또는 二列로 깔았으며 그 幅은 約四〇cm였고, 그 外緣에 幅約二〇cm의 長大한 角石으로 區劃짓고 있었다.

基壇의 各邊 中央에는 石階段이 設置되어 있었다. 이들 階段의 側石은 感恩寺 金堂基壇의 階段 側石과 같은 構成으로 地臺石, 三角形面石 甲石이 各各 別石으로 된 것이 遺存하는 階段 側石 地臺石에 의하여 알 수 있었다. 階段은 基壇前, 後面의 것은 舊地表에, 兩側面의 것은

翼廊(報告文에는「中廻廊」으로 되어 있음)基壇 上面에 到達하는 것이다. 千軍里廢寺 金堂基壇은 發掘報告 內容이 簡略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寫眞圖版등을 參考하여 그 形態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基壇은 單層基壇이며 基壇 地臺石 外周에는 步廊狀의 敷博施設이 있었다. 地臺石은 上面 外角部에 한단의 仄임이 있는 通例의 形式이며 面石과 甲石은 發見되지 않았다. 地臺石 外周의 敷博은 地臺石 바로 外周에 方博을 五例로 깔고 그 바깥 끝에 한 장의 博을 세워서 땅에 묻어 그 윗 끝의 地表에 솟아 五例의 敷博을 一次 區劃하였고, 다시 그 밖에 方博을 二列로 깔고 그 外緣에 博을 세워서 묻어 마감하였다. 이 二重으로 된 敷博의 幅은 一·八m에 達했다. 復原된 金堂基壇은 東西 約 一·八、三m、南北 約 一·六、九m이며 基壇의 높이는 알 수 없었다.

基壇의 前、後面 中央에는 石階段이 있었다. 階段의 外端은 敷博施設의 第一 區劃線과 一致하고 있었다. 階段 側石은 地臺石만 남았으며 그 形式은 感恩寺나 高仙寺와 같은 形成이었다. 基壇 兩側面 中央에서는 階段이 發見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그 部分을 調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原來는 翼廊이 있어 그 基壇 上面에 到達하는 階段이 있었을 것이다. 佛國寺 大雄殿基壇은 單層基壇이며 地臺石、面石、甲石 以外에 隅柱와 撐柱를 갖춘 石造基壇이다. 基壇 地臺石은 上面 外角部에 한단의 仄임이 있는 通例의 것이며 甲石 역시 下面 外角部에 한단의 仄임이 있고 上面이 平坦한 通例의 形式이다. 地臺石과 甲石 사이에는 面石이 끼어 게 되나 面石 사이 사이에 撐柱가 있고, 撐柱의 外面이 地臺石과 甲石의 한단 仄인 面에 一致되게 놓이기 때문에 面石은 그 보다 조금 더 안 쪽에 세워졌다. 基壇의 規模는 東西 一·八、五m、南北 一·六、九m이며 높이는 約 一·二m이다.

基壇의 前、後面 中央에는 地表에 到達하는 石階段이 있고, 兩側面 中央에는 翼廊基壇 上面에 到達하는 石階段이 設置되었다. 이들 階段의 側石은 地臺石과 三角形面石 및 甲石을 한 장의 큰 板石을 使用하여 刻出하고 있으며 感恩寺、高仙寺、千軍里廢寺의 경우와 같이 各部分을 別

石으로 만들지 않았다.

極樂殿基壇은 規模가 좀 작아지며 基壇 側面 中央에 石階段이 없는 것 이외의 모든 形式은 大雄殿基壇과 같았다.

塔基壇 塔基壇에 있어서는 望德寺 東、西塔만이 發掘調査된 唯一한 時代, 木塔基壇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石塔基壇이다. 이들 石塔의 基壇은 그 形式이 서로 恰似하나, 佛國寺 東塔인 多寶塔은 塔 自體의 形態와 아울러 基壇形式도 매우 特異하다.

望德寺 東、西塔의 基壇은 그 樣相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基壇은 二重基壇이며 下層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의 區分이 없는 斷面 長方形의 長大石으로 만들어졌고, 上層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石造基壇이다.

基壇 各面 中央에는 石階段이 設置되어 있으며, 階段 側石의 構成은 感恩寺나 高仙寺 金堂基壇의 階段 側石과 같다.

感恩寺 東、西三層石塔은 典型的인 新羅樣式으로 된 現存 最古의 石塔으로서 新羅樣式 石塔의 始源 石塔이라고 할 수 있는 塔이다. 石塔基壇은 二重基壇이며 各面에 石階段은 設置되지 않았다. 그 形態는 木造 建物이나 木造塔婆의 基壇과는 매우 다른 形態로서 上、下層基壇이 모두 地臺石、面石 및 隅柱와 撐柱를 갖추었고 그 위에 甲石을 올렸다. 基壇은 그 規模에 따라 몇 토막의 石材로 構成되며 塔의 規模가 작아질 수록 相對的으로 構成石材의 數가 적어진다. 感恩寺 塔의 下層基壇 甲石은 一二石으로 構成되어 있고 上層基壇 甲石은 八石으로 만들어 졌다. 下層基壇의 甲石은 下層基壇 上面을 弱한 傾斜를 지어 올라가면서 덮고 上層基壇의 地臺石까지를 一石으로 刻出하는 形式으로 만들어졌다. 上層基壇 甲石 역시 傾斜를 이루면서 上層基壇 上面을 덮고 初層塔身과 頂까지 一石으로 刻出하는 形式을 取하였다. 撐柱는 下層基壇에는 各面에 세 개, 上層基壇에는 各面에 두 개씩 刻出하였다. 下層基壇의 地臺石 外周에는 長方形 板石을 깔고 그 外緣에는 斷面 長方形의 長大石으로 마감한 所謂 塔區라고 불리는 施設이 있다. 基壇의 規模는 下層基

壇은一邊約六、〇五m, 높이〇、六m이고上層基壇은一邊約四、七m, 높이一、六七m이며塔區의幅은約一、〇m이다.

高仙寺 三層石塔의 基壇도 感恩寺塔 基壇과 꼭 같은 形式이며 그規模는 조금 크다. 下層基壇은一邊約六、七m, 높이約〇、五m이고上層基壇은一邊約五、一五m, 높이二、三m이다. 이塔의 下層基壇地臺石 外周에서는 塔區가 發見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日政時에 實施된 解體復原工事時에 塔區에 대한 認識이 없어 除去되었거나 또는 그工事時에는 이미 破損 滅失되었던 것인지 알수 없다. 다만 感恩寺塔의 경우나 後說한 千軍里廢寺塔 및 佛國寺 三層石塔에 塔區가 있는 것을 보아 高仙寺에도 原來 塔區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千軍里廢寺의 東、西三層石塔의 基壇 역시 위에서 말한 感恩寺塔이나 高仙寺塔과 같은 形式의 二重基壇이나, 下層基壇의 撐柱가 各面에 두개씩 配置되는 變化가 나타난다. 下層基壇 地臺石 外周에는 板石을 깔고 外緣을 長大石으로 마감한 幅約一m의 塔區(報告文에는 「地覆布石」으로 表現되었음)가 있다. 基壇의 規模는 下層基壇이一邊約四m, 높이四八m이고, 上層基壇은一邊約二、二m이며 높이는一、七五m이다.

佛國寺 三層石塔은 雙塔伽藍의 西塔에 該當된다. 塔基壇은 千軍里廢寺와 꼭 같은 形式이며 그 規模는 下層基壇이一邊約四、四m 높이〇、七m이고 上層基壇은一邊約三、二m, 높이一、四m이다. 塔區는 下層基壇 地臺石에서約一m 마찰에 떨어져서 幅約二〇cm의 長長臺石을 돌리고 그 네 隅角部와 各邊 中央等 都合 八個所에 直徑約八〇cm의 圓形 蓮花文石을 끼워 놓았는데 이것을 金剛蓮華座라고 通稱하고 있다. 또 이 基壇의 下層基壇 地臺石의 밑바닥은 地臺石 밑에 묻혀서 그 上部를 一部 地上에 露出시키고 있는 岩石의 曲線에 맞추어 彫刻하여 意識的으로 地臺石 밑바닥이 地表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진 點이 他石塔의 경우와 다르다.

佛國寺 東塔인 多寶塔의 基壇은 塔自體의 모습이 特異함과 아울러 다른 一般形의 石塔基壇과는 그 構成이나 形式이 매우 異質의이다. 흔히

이塔은 單層基壇 위에 四層의 塔身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塔全體의 構成으로 보아 二重基壇 위에 三層塔身을 올린 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基壇은 四面에 石階段을 갖는 높은 下層基壇과 그 上面中央에 方形石柱를 세우고 네 귀에 斷面이 ㄱ字形의 石柱를 세우고 그 위에 屋蓋形의 甲石을 올린 上層基壇으로 形成되었다. 基壇의 規模는 下層基壇은一邊이三、九m, 높이二、一m이며 上層基壇은一邊四、三m, 높이二、八〇m이다.

講堂基壇·講堂基壇은 感恩寺 講堂과 佛國寺의 講堂에 該當되는 無說殿의 것이 가장 잘 남아 있고 高仙寺에서는 基壇石의 一部分이 遺存해 있으며 千軍里廢寺에서는 基壇石은 전혀 찾지 못했다.

感恩寺 講堂基壇은 單層基壇이며,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石造基壇이었다. 地臺石은 上面 外角部에 한 단의 畧임이 있고 그 위에 面石을 올렸으며 面石 위에는 역시 下面 外角部에 한 단의 畧임이 있고 上面이 平坦한 甲石을 올렸다. 基壇 前面 두곳에 階段이 設置되었던 痕跡이 있으나 階段石은 남아있지 않다. 基壇의 規模는 東西三〇、六m, 南北一三、八m, 높이約七〇cm였다.

高仙寺 講堂基壇 역시 單層基壇이었다. 基壇 地臺石은 通例의 形式의 것이 아니고 높이九cm의 斷面四角의 長大石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높이二九cm의 面石을 올리고 있었다. 甲石으로 생각되는 石材는 發見되지 않았다. 基壇의 規模는 東西二三、三m, 南北一四、七m로 復原되었고, 높이는 元來부터 甲石이 없는 것이라 면約三八cm이고 萬一甲石이 있었다면約四七cm로 復原된다.

千軍里廢寺의 講堂基壇은 그 基壇土와 基壇 上面에 配列되었던 礎石 및 積心石群만이 남아 있었다. 講堂基壇의 크기는 確實치 않았으나 推定復原된 講堂建物은 正面約二八、五m 側面約一一、八m였고 基壇 높이는 比較的 낮았던 것 같다고 한다.

佛國寺 無說殿基壇도 單層基壇이며 그 形式은 大雄殿基壇과 같다. 즉 地臺石、面石、隅柱、撐柱 및 甲石을 갖춘 石造基壇이며 地臺石이나 甲

石은 通例의 形式이다. 基壇 規模는 東西約三二、二m、南北約一四、二m、높이 九六cm였다. 基壇의 前面에 四個所、後面 및 側面 中央에 各一個所 石階段이 設置되어 있다. 階段의 位置는 前面에서는 前面 八間으로 된 無說殿의 東쪽에서 第一、第三、第五、 및 第七 柱間에 一致하는 곳이고、後面은 第三 柱間에 一致하는 곳이다. 이들 階段의 側石도 大雄殿基壇의 側石과 같이 地臺石、三角形面石、甲石을 一石으로彫出한 것이었다.

廻廊基壇·廻廊基壇은 그 外裝形式이 明白하게 밝혀진 것이 극히 드물다.

望德寺 金堂基壇에서 西廻廊에 達하는 翼廊基壇은 人頭大의 긴축한 넷돌을 한 줄로 박은 것이었다. 그 形態는 地臺石의 積心石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어찌면 그것이 基壇의 外裝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東廻廊基壇에서는 一部에 긴축한 넷돌列이 나타났고、 또 곳에 따라서는 長方形塼을 한 줄로 配列한 곳도 있었으나 이것이 當初의 基壇 外裝이 었는지의 의심스럽다.

感恩寺에서는 西廻廊基壇이 잘 남아있다. 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매우 낮은 石造基壇이며 地臺石과 甲石은 通例의 形式으로 된 것이었다. 基壇의 높이는 約 五四cm이다.

高仙寺 廻廊基壇은 礎石 밑의 積心石群만이 確認되었을 뿐이며 基壇의 外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講堂 西쪽에 元來의 北廻廊基壇 石材가 남아있다고 報告되었으나 그것은 그 位置나 基壇 높이 등으로 보아 北廻廊이 아니고 別途의 獨立된 建物の 基壇 石材로 보아야 할 것이다.

佛國寺 廻廊도 基壇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現 大雄殿基壇 左右에 八世紀 中葉 重創時의 것인지는 確認되지 않았으나 翼廊基壇石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復原工事에서는 이 基壇石에 準하여 地臺石、面石、甲石의 區分이 없는 斷面 長方形의 긴 石材를 基壇石으로 使用하였다.

鐘、經樓基壇·鐘樓와 經樓의 基壇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遺構는 現在로서는 皇龍寺址에서만 發掘調査되어 그 樣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皇龍寺의 鐘樓와 經樓는 統一新羅時代、八世紀 中葉에 佛國寺가 重創된 以後에 廻廊에 둘러싸인 空間 內部에 建立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두 建物は 當初 正、側面이 각각 五間이며 東西로 좀 긴 平面을 갖는 建物이었으나、그 뒤、아마도 統一新羅時代 末期 또는 高麗時代 初期에 그 자리에서 正、側面이 五間이고 平面이 正方形인 建物로 改造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建物の 基壇形式에 관해서는 改造再建된 建物基壇에서만 確認할 수 있었다.

鐘樓基壇은 九層木塔의 東南쪽에 있으며 基壇의 東南隅部에 地臺石이 남아있었다. 이 地臺石은 通例의 形式을 갖는 것으로서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石造基壇임이 밝혀졌으나 支柱는 없었던 것 같다. 또 基壇의 東、西邊 中央에 남아있던 石階段 側石의 地臺石은 精巧하게 治石된 것은 아니었으나 三角形面石과 甲石의 三部材가 別石으로 된 形式임을 알 수 있었다. 基壇의 規模는 各邊이 約 一七、八m이며 높이는 約 〇、七m로 復原되었다.

經樓基壇은 鐘樓基壇과 對稱이 되는 木塔 西南쪽에 있었다. 基壇은 대부분의 地臺石과 基壇 各邊 中央에 設置된 階段石의 一部가 남아 있었으며 이들의 形態로 보아 基壇形式이나 階段 側石의 構成이 鐘樓基壇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그 規模도 같았다.

基壇構築土

金堂基壇構築土·望德寺 金堂基壇은 掘塲基壇 즉 基壇의 크기보다 좀 더 넓게 堅穴을 파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깨끗한 흙으로 단단히 다지면 서 基壇土를 쌓아 올리는 構築方法을 使用하였다. 構築土는 精選된 赤褐色 砂質粘土를 使用하였으나 版築法은 쓰지 않았다.

感恩寺 金堂基壇에서는 丘陵의 原地盤 즉 땅을 基壇 크기에 맞추어 四五cm 정도 높이로 깎아내어 그 위에 基壇 內部 空間을 만들기 위한 石材를 쌓았다. 基壇內 空間의 壁面과 上層基壇 面石과의 사이에는 자갈

이 섞인 黃褐色山土를 다지며 充慎하였다. 基壇門部 空間은 方形臺石을 포개어 長大石을 걸치고 그 위에 역시 長大石을 널마루를 까는 方式으로 깔아 그 위에 礎石을 配置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空間은 化龍하신 文武王^⑤의 安息處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空間으로 出入하기 위한 穴口 즉 龍穴^⑥은 上層基壇의 東, 西側面에 있었으며, 그 位置는 東쪽에서는 翼廊 바로 北쪽이며 西쪽에는 翼廊 바로 南쪽에 있었다.

高仙寺 金堂基壇은 「아래서 위까지 같은 狀態로 堆積되었을 뿐이어서 그들의 構築過程을 말해주는 어떤 層序狀態와 같은 것은 엿볼 수 없었다. 다만 基壇土 內部에 굵은 石塊들이 보다 많이 채워져 있었을 따름이다. 특히 이러한 石塊들은 礎石이 配置된 곳에 보다 더 많이 채워져 積心石으로서의 役割을 겸하게 한 것으로 보여졌다」^⑦고 報告文에서 말하고 있어 地盤을 形成하고 있던 土壤과 같은 흙을 使用하여 塊石을 混合하여 築造하였으며 礎石 밑은 意識的으로 補強을 위해 塊石을 많이 넣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千軍里廢寺 金堂基壇의 構築土에 관해서는 報告書에 「이 基壇의 地臺石에 의하여 둘러싸인 地區內는 원래 (基壇 바닥) 一面에 냇돌을 깔고 땅을 굳힌 것 같으며 部分的인 發掘에 의하여 그 事實을 推測할 수 있었다」^⑧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記錄으로 보아 寺域을 整地한 뒤에 地臺石을 돌리고 그 內部에 地盤을 굳히기 위하여 냇돌을 깔고 그 위에 土壤을 다지면서 쌓아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佛國寺 大雄殿基壇은 지금까지 發掘된 바 없어 그 構築土에 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後說할 無說殿基壇의 構築土와 같은 方法으로 構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塔基壇構築土…塔基壇 內部에 관해서는 木塔基壇인 경우에는 構築土를 생각할 수 있으나 石塔基壇인 경우는 거의 흙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構築狀態라고 하는 것이 흙을 것 같다. 望德寺 東, 西塔은 木塔이나 發掘報告가發表되지 않아 그 內容을 알 수 없고 그 밖의 것은 모두 石塔이므로 그 基壇 內部構築狀態는 서로 共通되고 있었다.

感恩寺 西塔의 경우는 一九五九年에 解體復原되었기에 그 基壇 內部狀態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直徑 1m 內외의 큼직한 塊石을 基壇 外裝石材 안쪽에 桴차게 쌓았고 이들 塊石 사이에는 크고 작은 割石을 채우고 있었다.

高仙寺 石塔은 日政時의 解體修理에서 基壇 內部를 콘크리트로 채웠기 때문에 原來의 모습을 알 수 없었다.

千軍里廢寺의 東, 西塔은 報告文에는 뚜렷한 說明이 없으나 寫眞에 의하면 感恩寺 西塔의 경우와 같은 큰 塊石은 아니나 直徑 四〇~五〇cm 정도의 냇돌을 基壇 外裝石材內에 채우고 있는 것 같았다.

佛國寺 西塔은 아직 解體된 바 없으나 基壇 外裝石材들의 벌어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內部狀態는 역시 人頭大의 냇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 같다.

講堂基壇構築土…望德寺址에서는 講堂의 遺構 自體를 確認하지 못했다.

感恩寺址에서는 一九八〇년에 實施된 再發掘에 의하여 講堂의 基壇土는 성판인 風化岩盤 위에 黃褐色 山土를 쌓아올렸음이 確認되었다.

高仙寺 講堂 基壇土는 「역시 이 寺址地域의 基壇土와 同一한 흙을 使用하였으며 土層의 變化를 把握하기 어려웠으며 基壇에 대한 改修등 그 變遷過程을 밝힐 수 없었다」^⑨고 報告되었다. 따라서 角礫이 많이 섞인 褐色粘土에 굵은 모래가 섞인, 寺域의 地盤을 形成하고 있는 흙으로 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千軍里廢寺에서는 講堂 基壇 構築土에 대하여 報告文에서 言及치 않았다.

佛國寺 無說殿 基壇의 構築土에 관해서는 「礎石 下部에는 巨大한 自然石을 접점이 쌓아 그 위에 礎石을 놓았고, 其他 部分에서는 基壇 構築土 바닥에 人頭大의 雜石을 깔고 基壇을 견고히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⑩고 報告되었다. 따라서 基壇 바닥에는 雜石을 깔고 그 위에 黃褐色 砂質粘土를 다지며 쌓았고 礎石 밑에는 巨大한 自然石을 접점이 쌓아

補強하였음을 알 수 있다.

鐘、經樓基壇構築土…皇龍寺鐘樓基壇은 再建時에 들어간 흙으로 보이는 腐蝕土와 瓦片이 섞인 土層 밑에 創建鐘樓의 基壇土와 礎石 積心石이 있었다. 이 創建基壇構築土는 基壇 中心部 마다에 方形으로 주먹 크기의 넷들을 깔고 그 위에 一邊約 1m의 큰 割石을 圓形에 가깝게 雜然히 配置하였고 이들에 쌓인 안쪽은 다진 痕跡이 없는 부드러운 黃褐色 砂質土로 채워져 있었다. 割石 外部는 黃褐色 砂質土로 단단하나 쪼고 그 밑은 이 地帶의 基盤土인 黑灰色 泥土層이었다. 이 基壇의 中央部 마다의 敷石施設과 그 위의 割石群과 다져지지 않는 土壤에 의하여 이것이 鐘樓基壇으로 比定하게 된 것이다.

經樓 基壇 構築土 역시 上面에 瓦片이 섞인 腐蝕土層이 있고 그 밑에 創建基壇의 基壇土로 보이는 두터운 黃褐色 粘土層이 있었다. 그 밑은 基盤土인 黑灰色 泥土層이었다.

[平面構成]

建物平面

金堂平面…統一新羅時代의 寺刹 金堂建物の 平面이 發掘調査에 의하여 確認된 것은 感恩寺 뿐이며 地表觀察에 의해서 推定된 것은 四天王寺와 望德寺가 있고 發掘調査로 推定 復原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高仙寺와 千軍里廢寺가 있다.

四天王寺 金堂은 正面五間、側面三間으로 推定되었고 望德寺 金堂은 正面五間、側面二間으로 推定되고 있다. 望德寺 金堂은 發掘調査에서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基壇土의 南北 幅 등으로 보아 正面五間、側面三間の 建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感恩寺 金堂은 發掘調査에서 밝혀진 石床施設의 臺石과 礎石 一個가 原位位置에 남아 있어서 正面五間、側面三間の 建物임이 確認되었다. 高仙寺는 發掘에 의해 確認되지 않았으나 基壇 上面에 唯一하게 남아 있

던 原位位置을 固守하는 礎石을 根據로 正面三間、側面三間の 建物로 推定되었다. 千軍里廢寺에서도 發掘을 통하여 正面五間、側面五間の 建物로 推定復原하고 있다.

佛國寺에서는 金堂에 該當되는 大雄殿과 金堂에 準하는 極樂殿이 모두 八世紀 中葉에 築造된 것으로 생각되는 基壇 위에 壬亂後에 再建된 것이다. 이들 建物이 原來의 規模대로 建立된 것인지의 與否는 알 수 없으나 平面構成은 그대로 踏襲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大雄殿은 正面五間 側面五間이며 極樂殿은 正面三間、側面三間の 建物이다.

塔平面…木塔을 갖는 望德寺 雙塔은 모두 初層塔身이 方三間이며 四天王寺의 雙塔 역시 表面觀察을 통해 같은 方三間の 塔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感恩寺 雙塔을 비롯하여 高仙寺塔、千軍里廢寺 雙塔과 佛國寺 西塔은 모두 石塔이며 新羅 典型樣式의 石塔으로서 方一間의 三層石塔이다. 佛國寺 東塔인 多寶塔은 上記 石塔들과는 모습이 전혀 다른 形式의 石塔이다.

講堂平面…講堂 平面은 感恩寺의 것이 正面八間、側面四間이었고 高仙寺에서는 正面五間、側面四間으로 推定하고 있다. 千軍里廢寺에서는 正面八間、側面四間の 等間の 기둥 配置로서 佛國寺 無說殿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同一하다고 報告되었다. 佛國寺 無說殿은 前述한 바와 같이 正面八間、側面四間이며 一九七三年에 宗工된 復原工事에서도 당시의 規模대로 復原하였다.

皇龍寺 講堂 平面은 創建伽藍의 것은 알 수 없었고, 重建伽藍의 것은 正面一〇間、側面四間이었다. 現在 地表에 露出되어 있는 礎石들은 그 뒤에 改造된 講堂의 礎石들이며 그 平面은 正面九間、側面五間이다. 이 講堂 平面이 正面九間으로 改造된 時期에 關해서는 發掘에 의해서도 確定되지 않았다. 아마도 統一新羅 最末期나 高麗 初期의 일이었을 것이다.

中門平面…中門 平面은 感恩寺、高仙寺、金堂院 및 千軍里廢寺와 佛國寺의 紫霞門과 安養門이 모두 正面三間、側面二間の 建物이다. 皇龍寺 伽藍에 鐘樓와 經樓가 附加되어, 이에 따라 中門과 南廻廊이 南쪽으

로 옮겨지면서 세워진 中門은 重創伽藍 즉 새로이 金堂을 重建하고 九層木塔을 完工하면서 一段落된 伽藍의 中門과 같은 正面四間, 側面二間の 建物이었다. 그 후 中門이 다시 그 자리에서 正面五間, 側面二間으로 改造되나 改造되는 時期는 確實치 않다. 아마도 講堂이 改造되는 時期와 같은 時期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伽藍配置

統一新羅時代に 들어서 創建된 寺刹의 遺址 가운데 發掘調査에 의하거나 表面觀察을 통하여 그 伽藍의 配置形式이 判明된 것은 高仙寺를 除外하고는 거의가 雙塔式伽藍 配置로 된 寺刹이고, 몇몇 寺刹址에서는 地表觀察로는 그 伽藍配置 形式이 推定되지 않은 것이 있다.

發掘調査에서 그 伽藍配置가 確認된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感恩寺, 望德寺, 高仙寺, 및 千軍里廢寺의 遺址들과 佛國寺이다. 이들 가운데 望德寺는 木塔으로 된 雙塔式伽藍이며, 感恩寺, 千軍里廢寺, 佛國寺는 石塔으로 된 雙塔式伽藍이다. 高仙寺는 石塔을 갖는 塔院과 金堂院이 並置된 形式으로 現在 確認된 것으로는 우리나라 唯一의 伽藍配置 形式으로 된 寺刹이었다.

感恩寺伽藍·感恩寺는 中門基壇 側面中央에서 東, 西로 南廻廊이 各 各一〇間이 設置되며, 이 南廻廊의 外端間이 東, 西廻廊의 南端間이 된다. 東, 西廻廊은 南端間을 包含하여 二〇間으로 構成되며, 그 北端은 他建物과 連結되지 않고 切斷된다. 東, 西廻廊의 南에서 二間씩 柱間이 그 앞 뒤 柱間보다 넓고, 여기에 金堂基壇 側面 中央에서 시작된 翼廊이 이어지며, 翼廊은 東, 西廻廊 안에 各 七間이었다. 講堂 左右에는 正面七間, 側面三間の 東西로 된 建物이 配置되고, 이 建物 外端 前面에 東, 西廻廊의 北端이 接近하고 있다.

高仙寺伽藍·高仙寺 伽藍은 東쪽에 中門, 金堂, 講堂을 南北一直線上에 配置하고 中門에서 講堂 左右 建物の 外端앞에 達하는 廻廊으로 둘러싸인 金堂院과 西쪽에 塔을 中心에 두고 四圍에 廻廊을 돌린 塔院이

各各 南廻廊을 一直線上에 두고 並置된 形式이며, 金堂院 西廻廊 南半部와 塔院 東廻廊이 接觸하여 이 部分만 複廻廊이 되었다. 金堂院은 中門을 中心으로 左右에 各 五間の 南廻廊이 있고 東, 西廻廊은 南廻廊이 北折하여 各 二間이라고 報告되었다. ⑩ 그러나 이 東, 西廻廊의 間數는 後說하는 講堂左右의 建物에 의하여 二間 정도 減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講堂 左右에는 報告文의 講堂址 說明에서 「講堂 基壇의 西쪽 側面에는 다른 建物の 基壇이 接觸되었다. 그 狀態는 廻廊이 接觸되는 것과 恰似하였지만 이 建物の 基壇 너비는 廻廊에 비교하여 훨씬 規模가 크며 一·二, 一·二m에 達하고 있다. 南面을 通過하는 基壇石은 講堂 基壇 西南隅角에서 北쪽으로 一·三二cm, 北面 基壇石은 講堂 西北隅角에서 南쪽으로 一·三〇cm 地點에서 連結되었으며 앞 뒤 間隔은 거의 同一하다. 즉 두 建物 基壇은 東西 中心線을 서로 一致시켜서 接觸되도록 計劃되어 있다」고 하였고 또 北廻廊址 說明에서도 「講堂 西側面에는 어떤 建物址가 接續되었는데 그 基壇의 너비는 一·二, 一·二m나 되는 넓은 것이었다. 이것은 複廻廊인 西廻廊의 基壇너비가 六, 九五m로 되어있는 것과 比較해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到底히 廻廊의 基壇으로 생각할 수 없는 遺構이다. 그런데 建物址에 使用된 基壇石들은 前面과 後面이 서로 同一치 않았다. 前面 基壇石은 地臺石 위에 面石을 配列한 構成임이 分明하였다. 講堂 基壇과 接續된 곳에 面石 一枚가 殘存하였는데 그 높이는 三二cm이며 그 아래를 받친 地臺石의 높이는 三五cm가 되었다. 이 石材들에 대한 加工手法는 比較的 精巧하였으며 創建 當時부터 使用된

어온 石材들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前面 基壇石은 北廻廊에 使用된 基壇石과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維持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후 이 北廻廊은 大幅으로 計劃이 變更되었으며 後面 基壇을 훨씬 北쪽으로 移動 擴張하고 廻廊 아닌 다른 目的을 위한 建물을 그 자리에 建立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報告文에서 이 建物址에 대하여 南北 넓이는 一·二, 一·二m였으나 東西의 길이는 殘存狀態

가 좋지 않아 分明하지 않았으나 附近의 礎石과 積心群으로 보아 五間以上 되고 그 柱間은 二·八^m로 推定하고 있다.¹⁹⁾

塔院은 後世의 變形이 있었으나 創建時는 南、北廻廊이 各 一六間、東、西廻廊은 一五間이었으며 塔은 그 中央에 있었다. 塔院에의 出入施設로서의 門建物이 마련되지 않고, 廻廊의 어느 柱間을 利用하여 入口로 삼았던 것 같다.²⁰⁾

千軍里廢寺伽藍…千軍里廢寺는 寺域을 全面發掘한 것이 아니고 主要建物址를 部分的으로 發掘하여 그 伽藍配置를 復原한 것이다. 이 復原에 의하면 中門左右에 열마간의 間隔을 두고 南廻廊이 시작되어 各七間으로 構成되었다. 南廻廊의 外端의 한 칸은 다른 廻廊 柱間보다 四邊이 더 큰 柱間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廻廊 建物과 다른 架構로된 建物이 分明하다. 東、西廻廊은 各 二〇間이며 그 南端은 南廻廊 外端의 北邊에 近接했고, 北端은 講堂 左右의 建物 外端 南쪽에 近接한 獨立된 建物로 架構되었다. 이 東、西廻廊의 南에서 一·二間씩 柱間이 그 앞뒤 柱間보다 넓게 만들어졌다. 이 位置가 金堂基壇 側面 中央에 一致되고 있으며 感恩寺의 경우와 같은 現象으로서 이 칸이 翼廊과 通하는 柱間임이 分明하다. 그러나 翼廊 附近이 發掘되지 않아 翼廊의 存在를 遺構로서 確證하지 못했다.

講堂 左右에는 柱間이 큰 正面二間、側面一間的 南向한 建物이 配置되었다. 이 建物 역시 講堂이나 東、西廻廊과는 接續되지 않은 獨立된 建物이며 東、西廻廊은 이 建物の 外端 前面에 近接하고 있다.

佛國寺伽藍…佛國寺 伽藍은 우리나라 古代伽藍으로는 特異한 構成으로된 伽藍의 하나이다. 즉 東쪽에 大雄殿을 中心으로 한 一廊과, 西쪽에 極樂殿을 中心으로 한 一廊의 두 伽藍이 並置되어 한 寺刹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東쪽은 紫霞門、大雄殿、無說殿을 南北一直線上에 配置하고 大雄殿前方 西쪽에 三層石塔、東쪽에 多寶塔을 配置한 雙塔式伽藍이다. 紫霞門 左右에서 東、西로 派生한 南廻廊은 各 六間으로, 그 兩端 끝이 北折하

여 東、西廻廊을 形成한다. 東、西廻廊의 南廻廊 南쪽 밖으로 한 칸 突出하여 이 部分만 樓狀으로 만들었다. 이 樓狀의 한 칸을 包含하여 東西廻廊은 各 二二間이다. 東西廻廊은 다시 西、東折하여 講堂 側面中央에 連結되는 北廻廊이 되며, 이것은 東、西廻廊의 北端間을 包含하여 各 三間으로 形成되었다. 大雄殿 左右에는 東、西廻廊 사이에 各 三間的 翼廊이 끼워졌다.

西쪽은 東쪽 伽藍의 西廻廊에 沿하여 한 단 낮은 地盤에 設置되고 있으며 安養門과 極樂殿을 南北으로 配置하고 安養門 左右에서 派生한 廻廊이 南、西、北面을 둘러쌌다. 南廻廊은 安養門 左右에 各 五間이며 東端은 東쪽 伽藍의 西廻廊 西邊 밑 築臺에서 그치고, 西端은 北折하여 西廻廊이 된다. 西廻廊 南端은 좁은 柱間 한 칸이 南廻廊 밖으로 突出하여 樓狀이 되며 이 칸을 合하여 西廻廊은 一五間으로 構成되었다. 西廻廊 北端은 다시 東切하여 西廻廊 北端間을 包含하여 一四間的 北廻廊이 된다.

皇龍寺伽藍…皇龍寺는 五七四年 丈六尊像이 鑄造되어 五八四年에 重建、金堂이 建立될 때 計劃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重建伽藍이 六四四年 九層木塔이 建立될 때 쯤 一段落되었던 것 같으나 아직 東、西廻廊이 複廊으로 建設되지 않는 段階에서 木塔 南쪽 左右에 鐘樓와 經樓가 建立되어 皇龍寺伽藍의 空間構成이 變化된다. 그 후 平面 長方形이었던 鐘經樓가 平面 正方形으로 改造되었고 이 즈음에 中門이 正面五間으로 講堂은 正面 九間으로 그리고 東、西廻廊도 複廊으로 改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四、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統一新羅時代 寺刹址 가운데 本格的인 發掘調査에 의하여 알게 된 여러 建物の 基壇과 平面構成의 實態를 보면, 이들 가운데에 前時代에서 繼承한 要素와 系統的으로 變化되어 온 要素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佛國寺에서 나타난 여러 要素들에는 異質적으로 차지 볼 수 있는 急激한 變化를 나타내는 점이 많았음도 알게 되었다. 이들을 整理 分析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基壇構成〕

金堂基壇…金堂 基壇形式에서는 完全한 二重基壇인 感恩寺의 것은 高句麗의 傳統을 이어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皇龍寺 金堂基壇 즉 二重基壇의 下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기능을 받치는 礎石을 配置한 形式²⁰⁾에서 變化 略化되어 下層基壇 上面의 礎石이 없어진 形態이다. 이와 같은 變化는 비록 基壇 모습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으나 百濟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變化이다. 즉 定林寺 金堂基壇과 彌勒寺 金堂基壇 사이에서 볼 수 있는 變化와 같은 것이다.²¹⁾

高仙寺 및 千軍里廢寺 金堂基壇의 地臺石 外周의 步廊狀 敷塼施設은 二重基壇에서 單層基壇으로 變化하는 過渡的인 形態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分明히 二重基壇을 象徵하는 것이다. 다만 千軍里廢寺의 敷塼施設은 內外 二重으로 되어 있으며 그 形態로 보아 內廊敷塼施設이 下層基壇을 象徵하고 外廊敷塼施設은 步廊으로 볼 수 있다. 이들 下層基壇을 象徵하는 敷塼施設은 뒤에서 말하는 石塔基壇의 塔區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 것이다.

佛國寺 大雄殿基壇은 完全한 單層基壇으로 千軍里廢寺 以前の 金堂基壇과는 그 性格이 顯著하게 다르다. 즉 千軍里廢寺 以前の 金堂基壇은 二重基壇 또는 二重基壇을 象徵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寺刹內에서 塔에 이어 金堂의 尊貴性을 象徵하며 다른 建物 보다 格이 높은 基壇 形式을 갖고 있었으나 佛國寺에서는 基壇의 높이는 다르나 講堂인 無說殿의 基壇과 같은 形式이 되었다. 또 千軍里廢寺 以前の 基壇에는 面石 사이에 撐柱가 없었는데 佛國寺에서는 撐柱가 設置된다. 또 千軍里廢寺 以前の 基壇에서는 石階段 側石이 地臺石, 三角形面石, 甲石이 各各 別石으로 만들어졌는데 佛國寺에서는 이들 三部機를 一石에 彫出하는 形式을 取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佛國寺 金堂基壇의 形式은 그뒤에 建立된 많은 寺刹에 繼承되어 간것으로 믿어진다.

塔基壇…木塔基壇에 관해서는 確實치 않았으나 石塔基壇은 高仙寺를 除外하여 모두 二重基壇이며 下層基壇 外周에 塔區가 있었다. 그러나 感恩寺나 千軍里廢寺의 塔區는 退化된 基壇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石塔基壇이 三重壇을 象徵하는 것이다. 그러나 佛國寺 三層石塔의 塔區 즉 金剛蓮華座는 이미 基壇을 象徵할 수 없는 극히 裝飾的인 것으로 變해버렸고 이以後 石塔基壇에 塔區가 消滅되어간다. 이 塔區는 앞에서 말한 金堂基壇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서 感恩寺나 高仙寺, 千軍里廢寺의 金堂基壇이 二重基壇 또는 二重基壇을 象徵하는 基壇이기 때문에 金堂보다 格이 높아야 하는 石塔基壇은 三重基壇이거나 三重基壇을 象徵하는 것이라야 했다. 그러므로 高仙寺塔에서도 確認되지 않았으나 原來 塔區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佛國寺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미 金堂基壇이 完全한 單層基壇이 되었기에 石塔基壇은 그보다 格이 높은 二重基壇으로 足하게 된다. 따라서 그 塔區는 基壇을 象徵할 必要가 없으므로 裝飾的 機能만 갖는 것으로 變했고 그후에는 塔區가 消滅되는 것이다.

基壇은 下層基壇이 地臺石, 面石, 隅柱, 撐柱를 갖추었고, 甲石은 基壇 上面을 덮고, 上層基壇 地臺石까지 一石으로 만드는 方向으로 處理되었다. 上層基壇 역시 地臺石, 面石, 隅柱, 撐柱 및 甲石을 갖추었으며 甲石은 基壇 上面을 덮고 初層 塔身과 이음까지 一石으로 彫出하는 方式으로 만들어졌다.²²⁾ 石塔基壇의 上層基壇은 下層基壇에 比하여 顯著하게 높게 만들어지며 撐柱는 感恩寺塔과 高仙寺塔에서는 下層基壇 各面에 세 개씩 配置하고 上層基壇 各面에는 두 개씩 配置하였으나 千軍里廢寺塔과 佛國寺 三層石塔에서는 上, 下層基壇에 모두 두 개씩 配置되는 變化를 나타낸다. 이 撐柱의 數는 時期가 내려오면서 점차 減少된다.

木造建築에서의 二重基壇에서의 下層基壇은 皇龍寺나 感恩寺 뿐만 아니라 高句麗나 百濟에서도 地臺石과 面石, 甲石의 區別이 없는(百濟 彌

勒寺에서는 甲石은 別石으로 만들어진 長大石으로 만들어졌고 上層基壇에서 비로소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基壇이 되었는데, 新羅의 石塔基壇에서는 처음부터 上、下層基壇에 地臺石과 面石、甲石뿐만 아니고 撐柱까지 갖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疑問에 逢着하게 된다. 그것은 木造建物에서의 二重基壇의 原來의 모습인 石塔基壇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는데 점차 皇龍寺나 感恩寺의 金堂基壇과 같은 形式으로變하고 撐柱도 省略되었던 것인데 新羅의 石塔基壇에서 復原的으로 다시 出現한 것인지, 아니면 原來의 二重基壇은 高句麗나 百濟 또는 古新羅의 皇龍寺 金堂基壇에서 볼 수 있는 形態의 것이 점차 百濟에서는 彌勒寺、新羅에서는 感恩寺의 金堂基壇 形式으로 變化하고 新羅 石塔基壇은 新羅人の 創意에 의해 創作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中國의 古代 建築基壇의 樣相을 所상히 알고 있어야만 解明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講堂基壇… 講堂基壇은 古新羅의 皇龍寺 重建伽藍에서는 地臺石、面石 甲石의 區別이 없는 斷面 長方形의 長大石으로 만든 낮은 單層基壇이었으나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서 創建된 感恩寺에서는 單層基壇이기는 하나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通例의 石造基壇이었다. 高仙寺에서는 地臺石이 通例의 上面 外角部에 한 단의 꺾임이 있는 形式이 아니고 斷面 長方形의 石機였고 그 위에 面石을 올렸으나 甲石의 存在는 確認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變化는 講堂基壇形式의 體系的인 變化라고 하기 보다 高仙寺를 營造한 사람의 形便 또는 趣向에 따라서 略化된 것이라고 把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그 뒤에 만들어진 佛國寺 講堂인 無說殿基壇이 大雄殿基壇과 꼭 같은 形式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分明하다. 따라서 講堂基壇은 古新羅에서는 金堂基壇과는 크게 다른 畧格이 낮은 形式으로 만들어지나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서는 原則的으로 單層基壇으로 만들기는 하되 地臺石、面石、甲石을 完備한 石造基壇으로 만들어지며 寺刹을 營造하는 사람의 形便에 따라 略化된 形式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

講堂基壇에 있어서 注目하여야 할 事實은 그 寺刹에서의 金堂基壇과의 높이의 比率에 대한 變化이다. 즉 皇龍寺에서는 中金堂基壇의 全高가 約 一、三五m에 대해 講堂基壇은 〇、三五m로서 講堂基壇이 金堂基壇의 約 四分の一 높이었다. 感恩寺에서는 一、四五m에 대해 〇、七m로 約 二分の一、高仙寺에서는 六〇cm에 대해 四七cm로서 約 三分의二에 가까와졌으며, 佛國寺에서는 一、二m에 대하여 〇、九六m로서 四分의三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時期가 내려옴에 따라 講堂基壇이 점차 높아져서 金堂基壇의 높이에 가까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講堂基壇이 完全한 石造基壇 形式을 갖추게 되는 事實과 아울러 寺刹內에서의 講堂의 比重이 增大됨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講堂基壇이 金堂基壇과 같은 높이가 되거나 그보다 높아지는 일은 없다.

廻廊基壇… 廻廊基壇 形式이 確實하게 밝혀진 것은 感恩寺뿐이므로 당 장어떻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古新羅의 皇龍寺에서는 斷面 長方形의 長大石으로 基壇을 만들고 있었고 感恩寺에서는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基壇이었던 것으로 보아 앞에서 말한 講堂基壇의 경우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서는 原則的으로는 典型的인 基壇形式을 갖춘 基壇으로 만들어지나, 寺刹 營造者의 形便이나 趣向에 따라서 簡略化될 경우가 있었을 것이며, 그 정도도 講堂과 廻廊이 갖는 寺刹內에서의 建物の 格의 差에 따라서 甚했을 것으로 보인다.

鐘、經樓基壇… 重建伽藍에 鐘樓와 經樓를 追加하게 된 皇龍寺는 伽藍의 形式이 크게 달라졌다. 이 鐘樓와 經樓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할 것이나 統一新羅時代, 그것도 八世紀 中葉 佛國寺 重建以後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基壇形式과 石階段 側石의 構成은 佛國寺의 것과는 달리 千軍里廢寺 以前의 形式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事實은 鐘、經樓의 基壇이 皇龍寺의 既存建物の 基壇들과 調和되기 위하여 그와 같은 古式의 形式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基壇構築土… 金堂基壇 構築方法에서는 皇龍寺 金堂이나 塔基壇에서

볼 수 있었던 掘墳基壇은 望德寺에서만 確認되었고, 感恩寺, 高仙寺 千軍里廢寺에서는 掘墳基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事實은 점차 基壇이 構築方法이 簡略化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感恩寺 金堂基壇에서는 下層基壇部를 原地盤을 基壇 크기 만큼 깎아 내어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며, 이 方法은 高句麗의 淸岩里廢寺 木塔基壇이나 百濟 定林寺 講堂基壇에서 볼 수 있는 方法이다.²⁶⁾

高仙寺 金堂基壇에서는 礎石 下部에 巨大한 塊石들을 특히 많이 넣고 있었으며, 佛國寺 無說殿基壇에서는 基壇 밑바닥에 塊石을 깔고, 礎石 下部에는 많은 割石을 넣고 있어서 共通되는 工法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工法은 分明히 基壇 構築土를 補強하고, 礎石의 沈下를 防止하는 方法이며, 皇龍寺 東金堂이나 高句麗 東始子 住宅遺構에서 볼 수 있는 土法인 礎石 밑에 數層으로 敷石施設을 한 補強工法을²⁷⁾ 簡略化한 工法이다. 또 千軍里廢寺 金堂基壇 밑바닥에 塊石을 깔고 있는 것도 佛國寺 無說殿의 例와 같은 工法으로서 基壇 밑의 地盤을 補強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서는 寺刹의 金堂을 비롯한 重要建物の 基壇構築土는 비록 掘墳基壇은 初期에 消滅되나 地盤의 補強이나 礎石 下部의 補強을 위한 敷石施設등이 採用되고 있다.

塔基壇 가운데 望德寺의 木塔基壇 構築土는 알 수 없고, 다른 寺刹의 石塔基壇에서는 基壇 外裝材 안에 割石 또는 塊石을 꼭 채우고 있었다. 이들 内部에 充填된 石材들의 크기가 石塔의 規模와 關連이 있는지의 與否는 確實치 않으나 感恩寺, 高仙寺, 千軍里廢寺塔 그리고 佛國寺三層石塔으로 그 建立年代가 내려오면서 石塔의 크기가 작아지는 傾向이 보이고 또 基壇 内部에 充填된 石材의 크기가 작아지는 傾向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石塔基壇의 内部에 充填된 石材는 그 機能上 人頭大 以下の 작은 돌을 主充填材로는 使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皇龍寺 鐘樓基壇 構築土에는 基壇 바닥 中央에 넓은 敷石施設이 있고 그 위에 巨大한 割石을 圓形에 가까운 形態로 配置하고 그 内部 土壤은

굳게 다진 痕跡이 없는 매우 부드러운 狀態였고 外部는 보통 基壇構築土와 같이 굳게 다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特異한 基壇構築土는 基壇 위에 세워지는 建物の 機能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鐘樓基壇일 것이라고 判斷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닥에 敷石하고 그 위에 圓形的으로 巨大한 割石을 配置하고 그 内部를 전혀 다치지 않는 狀態로 흙을 채웠던 것이 그 위에 鐘을 매달고 音響效果를 올리려했던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鐘樓와 對稱이 되는 位置에 있는 建物 基壇은 古히 一般的인 基壇構築土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基壇構築土 속에 特殊한 施設이 必要하지 않은 經樓基壇일 것으로 判斷하게 된 것이다.

〔平面構成〕

建物平面…金堂建物の 平面은 四天王寺, 望德寺, 感恩寺가 모두 正面五間, 側面三間の 建物이었고, 高仙寺는 正面三間, 側面三間이며 千軍里廢寺와 佛國寺는 正面五間, 側面五間の 建物로 變했다. 이것을 보면 高仙寺를 除外하고는 七世紀末에 建立된 寺刹의 金堂은 正面五間, 側面三間으로 構成된 것이 많았고, 八世紀에 들어서 建立된 것은 正面五間, 側面五間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는 事實을 짐작하게 한다. 高仙寺의 경우는 例外的인 것인 지, 혹은 金堂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인지 알 수 없다. 또, 金堂의 正面과 側面の 크기의 比를 基壇(단 感恩寺는 上層基壇)의 正面幅과 側面幅으로 살펴보면 感恩寺는 一、四… 이고 高仙寺, 千軍里廢寺 및 佛國寺는 거의 一、一…의 比率을 나타낸다. 皇龍寺 中金堂과 東, 西金堂의 平面은 各各 正面九間, 側面四間과 正面七間, 側面三間이었고 그들의 上層基壇은 正面 四九、五m, 側面 二四、四m 및 正面 三五、七m, 側面 二〇、四m로 그 正面幅과 側面幅의 比는 二·一과 一、八…이였다. 이러한 事實을 감안할 때, 寺刹 金堂은 古新羅에서 統一新羅時代 初期에 이르는 사이에 寺刹 規模의 縮少가 原因인 것으로 보이나 正面 柱間이 적어지며 正, 側面의 크기의 比는 時期가 내려올수록 差가 적어지고 長方形平面이 正方形

에 가까운 平面으로 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堂의 正面柱間은 恒常 奇數間임도 알 수 있다.

塔의 平面은 四天王寺와 望德寺가 모두 方三間의 木塔이며 餘他の 寺刹은 石塔으로 新羅典型樣式의 石塔의 通例에 따라 方一間이다.

講堂 平面은 感恩寺, 千軍里廢寺, 佛國寺가 모두 平面八間, 側面四間이고 高仙寺만 正面五間, 側面四間으로 報告되었다. 皇龍寺 重建伽藍의 講堂이 正面一〇間, 側面四間이었던 것과 아울러 생각한다면 講堂 平面은 古新羅에서 적어도 八世紀中葉까지는 正面이 一〇間 또는 八間으로 偶數面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通例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高仙寺 講堂의 正面이 五間이란 것은 錯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後代에 改造된 建物の 平面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講堂基壇의 正面幅과 側面幅의 比는 高仙寺를 除外하고는 모두 一·二·二·一에서 二·四·一·一 속에 들어가고 高仙寺는 一·六·一·一이다.

中門의 平面은 感恩寺, 高仙寺, 千軍里廢寺 및 佛國寺가 모두 正面三間, 側面二間的 建物이었다. 그러나 皇龍寺 重建伽藍의 中門은 正面四間, 側面二間的 建物이었으며, 皇龍寺伽藍에 鐘樓와 經樓가 들어서게 되어 中門과 南廻廊을 南쪽으로 옮겼을 때 또 역시 正面四間, 側面二間으로 만들어졌던 點에 興味를 느낀다. 즉 中門은 一般的으로 規模가 작은 建물이기 때문에 正面三間, 側面二間的 建物로 만들어지기 쉬우나 皇龍寺에서 두 번에 걸쳐서 正面四間的 建物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꼭 奇數間으로 建立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 分明하다. 또 講堂이 偶數間으로만 들어지는 強한 傳統이 있고 日本 法隆寺 中門의 平面이 역시 正面四間的 建物임을 감안한다면 中門을 偶數間으로 만드는 傳統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을 갖게 한다. 全時代를 通하여 寺刹의 塔과 金堂이 正面은 반드시 奇數間으로 만들어지며 그들 建物の 權威에 대하여 그보다 훨씬 格이 낮은 講堂이나 中門 등 伽藍 中心線上에 있는 建物は 奇數間을 避하려는 努力이 더해졌던 것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여러 寺刹의 講堂이 奇數間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皇龍寺 中門의 正

面이 五間的 建物로 改造된 時期에는 그와 같은 努力도 사라졌음은 말 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이와 같은 事實은 아직 速斷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의 研究課題라고 할 수 밖에 없다.

伽藍配置.. 지금까지 살펴온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된 寺刹址 가운데 發掘調査되어 그 伽藍 樣相을 比較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高仙寺를 除外하고는 모두 雙塔式伽藍이었다. 다만 佛國寺만은 大雄殿 一廓과 極樂殿 一廓의 두 伽藍이 並置되어 한 寺刹을 이루고 있었으며 寺刹의 主體的 伽藍인 大雄殿 一廓이 雙塔式伽藍이었다. 高仙寺는 金堂院과 塔院이 東西로 並置된 形式이며, 이것은 現在로는 우리나라 唯一의 特殊한 形式的 伽藍配置이다. 이와 같은 類形的 伽藍은 八~九世紀에 創建된 日本의 寺刹 가운데는 몇몇 그 遺址가 알려져 있다. 佛國寺의 東西로 並置된 伽藍도 그 伽藍의 性格이나 意義는 서로 다르나 外形上의 構成은 高仙寺 伽藍이 參考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發掘調査된 이들 伽藍 가운데 佛國寺 以外の 모든 伽藍은 講堂 左右에 北廻廊이 設置되지 않고, 別途의 建물이 配置되고 있었음은 重要한 事實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皇龍寺 重建伽藍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講堂 左右에 正面一二間, 側面三間的 南向한 建물이 있었다. 感恩寺에서는 正面七間, 側面三間的 建물이, 그리고 高仙寺에서는 確實하지는 않았으나 正面五間, 側面三間으로 생각되는 建물이 있었다. 千軍里廢寺에서는 柱間으로 된 正面二間, 側面一間的 建물이 配置되고 있었고, 佛國寺에서 비로소 講堂基壇 側面 中央에 北廻廊이 닿게 되어 北廻廊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事實은 百濟 伽藍에서도 볼 수 있는 現象이며 扶餘軍守里廢寺, 東南里廢寺 및 定林寺에는 講堂 左右에 北廻廊이 아닌 獨立한 建물이 配置되고, 이들보다 좀 늦은 時期에 創建된 것으로 보이는 金剛寺에서 처음으로 講堂基壇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 北廻廊이 接觸하게 된다. 이러한 事實을 볼 때 古新羅에서 統一新羅時代 初期인 八世紀 前半期까지는 伽藍에 北廻廊은 없었고 佛國寺 重建 以後에 北廻廊이나

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傾向은 絶對年代上의 差異는 있으나 百濟에서도 볼 수 있는 事實임을 알게 되었다.

北廻廊이 나타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建物の 機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뚜렷한 解答은 아직은 얻기 어려운 形便이다. 그러나 感恩寺의 것은 그 平面이 正面七間, 側面五間이며 正面인 道里間의 柱間은 同一間隔이며 樑間은 中央間이 五m 이고 그 前, 後間은 二, 六m 로서 中央間의 거의 折半 넓이이다. 高仙寺의 경우에는 이 建物の 礎石 位置를 正確하게는 알 수 없었다. 皇龍寺 重建伽藍에서의 講堂 左右에 있는 建物도 비록 正面一二間, 側面三間으로 正面間數가 많기는 하나 역시 正面 柱間은 約5m의 거의 同一 柱間이며 側面은 中央間이 五, 二m, 그 前, 後間이 二, 六m 로서 感恩寺의 것과 비슷한 平面構成이다. 그런 데 이들 두 建物の 平面構成은 皇龍寺 創建伽藍에서의 東, 西廻廊 밖에 南北으로 길게 配置되고 있는 僧房으로 추정되는 建物の 平面構成과 恰似하다. 즉 이 建物は 道里間(南北 柱間)은 五, 五m 정도로 거의 같은 柱間이며 樑間(東西 柱間)은 中央間이 約六, 七m이며 그 前, 後間은 二, 六m 程度이다. 이러한 狀態로 보아 感恩寺나 皇龍寺의 講堂 左右에 있는 建物は 皇龍寺 創建伽藍의 僧房으로 추정되는 建物과 그 機能이 같거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建物 역시 僧房 또는 僧房的인 用途로 사용된 建物일 것이며, 高仙寺 講堂 左右의 建物도 비록 正面 柱間은 五間으로 縮少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用途의 建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千軍里廢寺 講堂 左右의 建物は 좀 狀況이 다르다. 이것은 柱間이 상당히 넓은 正面二間, 側面一間的 建物로서 앞의 感恩寺나 高仙寺의 建物에 比하면 매우 縮少된 形態의 建物이다. 따라서 이 建物の 規模나 平面의 性格으로 보아 僧房 또는 僧房的인 機能을 갖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法典이나 佛器들을 收藏하는 倉庫의인 用途로 사용되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講堂 左右에 있는 建物は 皇龍寺에서 感恩寺, 高仙寺 그리고 千軍里廢寺로 그 創建時期가 내려오면서 規

模가 점차 縮少되고 있음이 確實하고 千軍里廢寺에서 그것이 極에 達하며, 급기야는 佛國寺의 경우와 같이 北廻廊으로 變化하는 過程을 잘 나타내고 있다.

千軍里廢寺 伽藍에는 또 하나의 特徵이 있다. 그것은 東, 西廻廊의 南端間이 從來의 伽藍에서는 보지 못했던 形態 즉 廻廊의 他柱間과는 달리 四邊이 모두 더 큰 柱間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東, 西廻廊의 南端間이 東, 西廻廊이나 南廻廊의 架構와 別途의 架構 즉 비록 連續되고 있는 建물이기는 하나 別途의 建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報告者는 「이것은 佛國寺의 例에 따라서 본다면 經, 鐘樓에 속하는 建物址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㉞ 이 부분이 鐘樓나 經樓로 사용된 部分인지의 與否는 지금 斷定하기 어려우나, 이 뒤에 建立된 것으로 보이는 佛國寺의 東, 西廻廊이 南廻廊 밖으로 한 칸 突出하여 그 部分이 樓狀 建物로 만들어지는 形式의 先行 形態임을 分明하다. 그리고 佛國寺에서의 이 部分이 鐘樓 또는 鼓樓로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은 극히 一般화된 見解인 것이다. 따라서 千軍里廢寺의 講堂 左右의 建物は 北廻廊으로 變하기 直前の 形態이며, 東, 西廻廊의 南端間은 佛國寺에서의 南쪽으로 突出하여 樓狀 建物이 되는 先行 形態라는 點은 伽藍 配置 形態의 變遷過程을 究明하는데 매우 重要な 資料가 된다. 그러나 이 佛國寺의 東, 西廻廊 南端의 樓狀 建物이 그 뒤에 建立되는 寺刹에 通例적으로 繼承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皇龍寺 重建伽藍에서 당초 計劃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鐘樓와 經樓가 附加되어 또 한 번 伽藍의 性格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 鐘樓와 經樓가 어느 時期에 設置되게 되었으며 그 以前の 伽藍에서 어떤 經路를 거쳐 이와 같은 變化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寺刹의 伽藍配置의 變化 속에서 무엇이 어떤 經路를 거쳐서 廻廊에 둘러싸인 空間 內部에 鐘樓와 經樓로서 獨立된 建物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두 가지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講堂 左右의 建物이 점차 縮少되어

서 千軍里廢寺에서는 正面二間、側面一間的 작은 建物로 變했으며 이것
 이 다음 段階에 그 자리에서 離脫되어 伽藍內 空間에서 獨立된 建物로
 變할 수 있을 것이라는 見解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
 이 正面間數가 많고 側面間數가 세 칸이었던 建物이 점차 縮少 退化
 되어 마지막으로 北廻廊으로 變身 定着하는 것이므로 伽藍內 空間으로
 分離 獨立되는 變化의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講堂 左右의 建
 物이 獨立된 鐘樓와 經樓 建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의 可
 能性은 千軍里廢寺에서의 東、西廻廊의 南端間이 廻廊과는 달리 別途의
 架構로 된 建物이었고, 이것이 佛國寺에서는 더욱 發展의 變化的으로
 南廻廊 南쪽으로 突出하게 되어 樓狀 建物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伽
 藍의 東、西廻廊의 南端間이 當初에는 感恩寺와 高仙寺의 경우와 같이
 南廻廊의 兩端間으로서로 共有하는 廻廊의 屈曲部였던 것인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廻廊과는 別途로 架構된 建物로 變하고 다시 南廻廊 밖으
 로 突出된 樓狀 建物로 發展되는 變化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 흐름의 다음 段階는 廻廊에서 完全히 離脫하여 獨立建物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廻廊內 空間 안에 자리잡게 되어 鐘樓와 經樓가 되는 것
 이라는 見解이다. 마침 佛國寺의 樓狀 建物을 鐘樓나 鼓樓로 比定하는
 것보다도 一致되어 鐘、經樓의 發生을 이와 같은 變化 發展의 結果로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에 따르면 皇龍寺에 鐘樓와 經樓
 가 建立되는 時期는 적어도 八世紀 中葉에 金大城에 依해 佛國寺가 重
 建된 以後의 일이라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九層木塔 前方 左右에
 配置된 것은 當時 流行되었던 雙塔式 伽藍配置에서의 雙塔의 位置가 參
 考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見解를 바탕으로 하여 學界에 널리 알려져 있는 六七九
 年(文武王一九)에 創建된 四天王寺의 伽藍配置에 관하여 檢討해 보자.
 四天王寺의 伽藍配置는 地表觀察에 의하여 推定復原된 伽藍配置圖가
 一九三〇年 藤島亥治郎에 의하여 發表되어 그 후 널리 學界에서 引用
 되어 왔다. 그 內容은 中門、金堂、講堂을 南北一直線上에 配置하고 金

堂、南쪽 東·西에 塔을 配置하며 金堂 北쪽 東、西에 左、右 經樓를 配
 置한 것이다. 廻廊은 中門 基壇 側面 中央에서 東西로 뻗어 各各 北折하
 여 東、西廻廊이 되고 다시 이것이 各各 西、東折한 北廻廊이 되어 講堂
 南쪽 柱間에 一致되는 位置에 닿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伽藍配置 樣
 相은 앞에서 살펴본 이 時代 伽藍의 樣相과 맞지 않는 點이 두 가지 있
 다. 그 하나는 感恩寺보다 먼저 創建된 四天王寺에 北廻廊이 있다는 點
 이다. 여기에는 當然히 正面이 七間 정도가 되고 側面이 三間的 建物이
 들어서야 할 자리인 것이다. 또 하나의 問題는 적어도 重建 佛國寺가
 建立된 以後에 나타날 수 있는 左、右 經樓 또는 鐘、經樓가 金堂 뒷쪽
 左右에 있다는 것이다. 이 建物址는 分明히 四天王寺址에서 地表觀察로
 確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四天王寺에 이 두 建物이 있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 建物이 四天王寺 創建時부터 있었던 것인지
 의 與否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筆者의 見解로는 創建 當初에는 이와 같
 은 建物이 없는 寺刹이었으나 그 후 어느 時期에 그 위치에 附加되어
 세워진 것이거나 또는 伽藍 全體를 重建하였을 때 그 위치에 세워진 것
 으로 본다. 그리고 그 時期는 佛國寺 重建 以後의 일이며 皇龍寺에 鐘、
 經樓가 建立된 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皇龍寺에서는 九層木塔
 前方 左右에 쉽게 鐘、經樓를 配置할 수 있었으나 四天王寺에서는 그에
 該當되는 位置에 東、西塔이 있기 때문에 平面構成에서의 均衡上 金堂
 뒷쪽 左右에 놓이게 되는 또 하나의 變化를 갖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즉 佛國寺의 樓狀 建物이 廻廊에서 離脫된 狀態로 皇龍寺 鐘、經
 樓가 되고 그것이 다시 伽藍의 뒷편으로 移動된 것이다.

五、

以上에서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되고 그 遺址가 發掘調査에 의하여 比
 較的 자세히 그 內容을 알게 된 寺刹을 위주로 基壇構成과 平面構成에
 대하여 그 實態와 相互間的 關聯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그 結果, 統一



圖 1. 感恩寺址 金堂基壇 上面(石構造)



圖 2. 感恩寺址 金堂北側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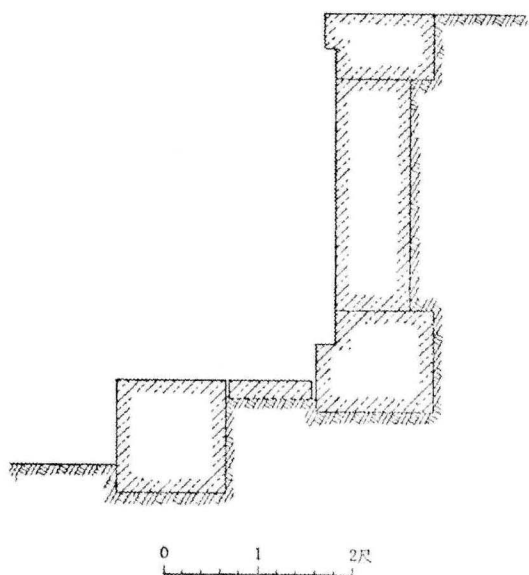


圖 3. 感恩寺 金堂 基壇石 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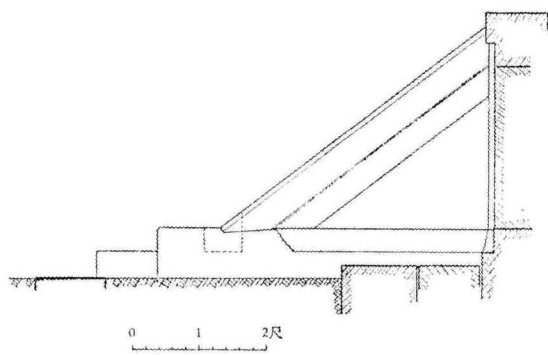


圖 4. 感恩寺 金堂 石階 推定 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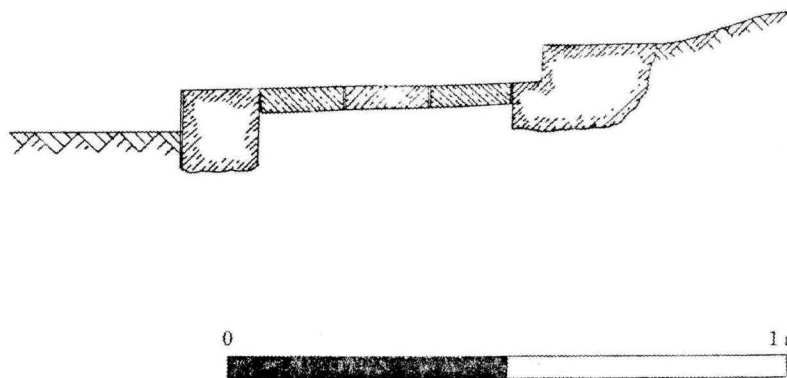


圖 5. 高仙寺 金堂 基壇石 實測圖



圖 6. 千軍里廢寺 金堂基壇 敷石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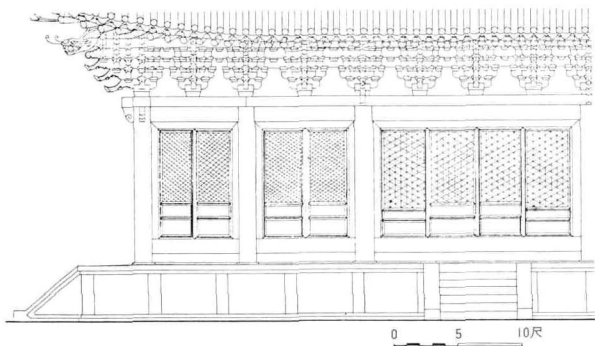


圖 7. 佛國寺 大雄殿 基壇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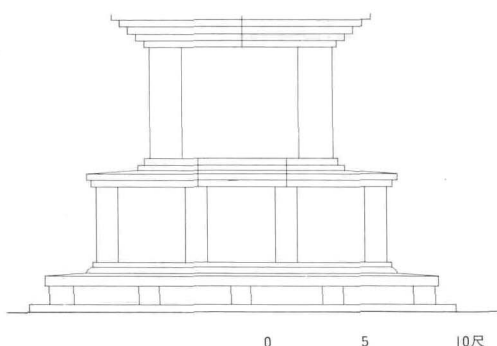


圖 8. 感恩寺 西塔基壇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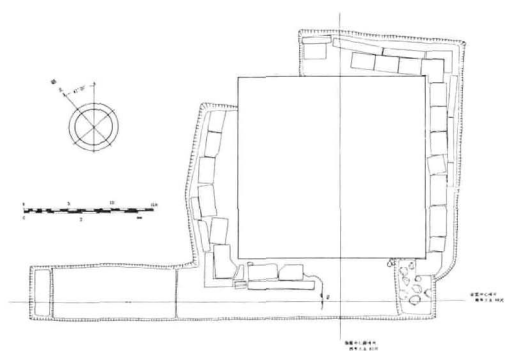


圖 9. 感恩寺 西塔 塔區



圖 10. 千軍里廢寺 東塔 塔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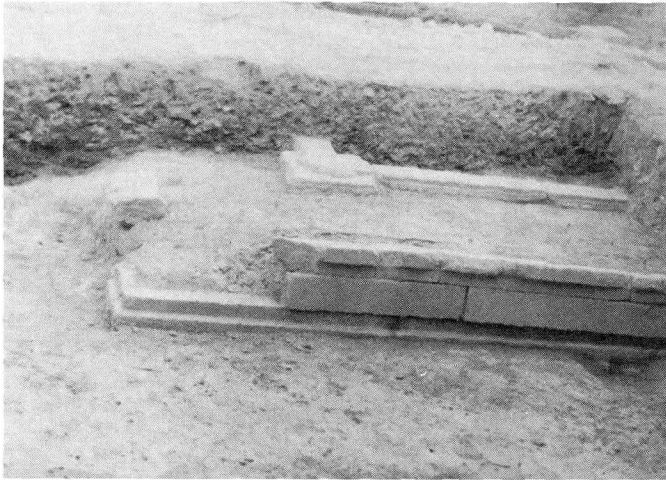


圖11. 感恩寺址 講堂 基壇(東北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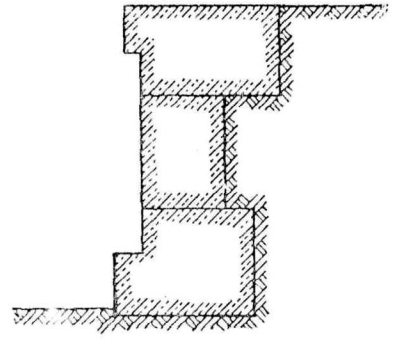


圖12. 感恩寺 講堂 基壇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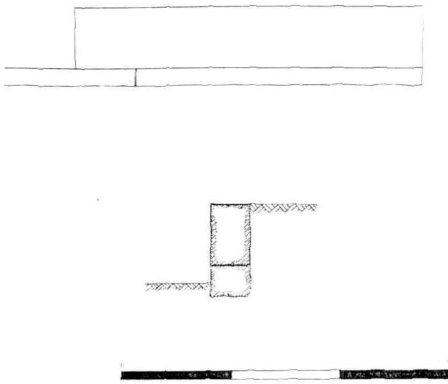


圖13. 高仙寺 講堂 基壇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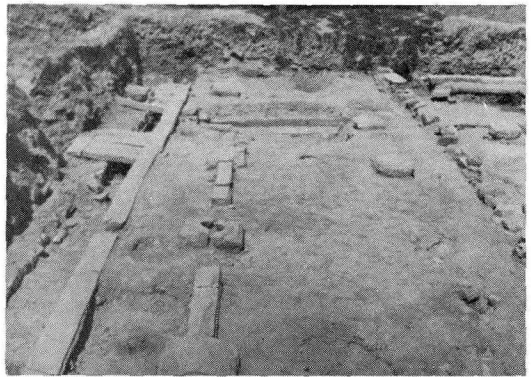


圖14. 感恩寺址 西迴廊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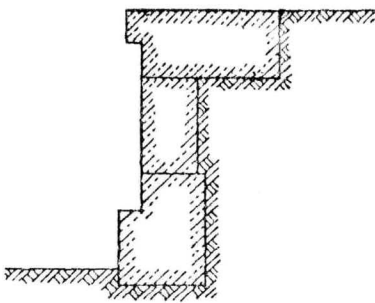


圖15. 感恩寺址 西迴廊 基壇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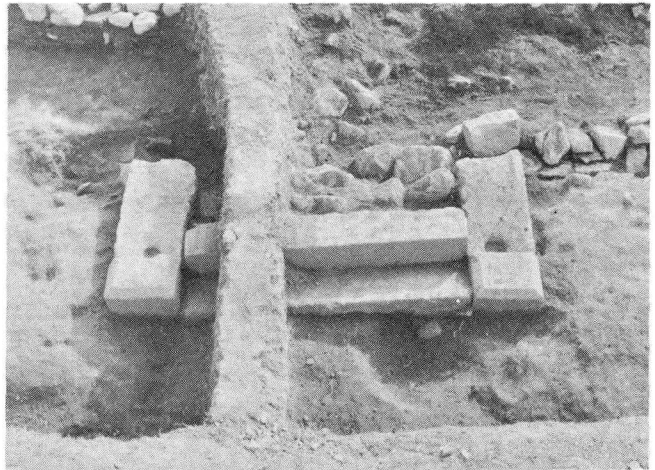


圖16. 皇龍寺 堆定 經樓 基壇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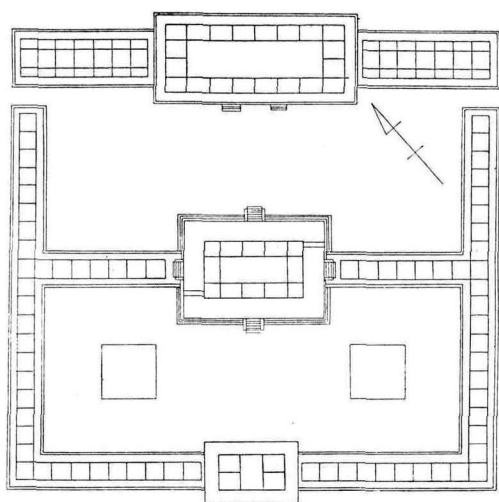


圖17. 感恩寺 伽藍 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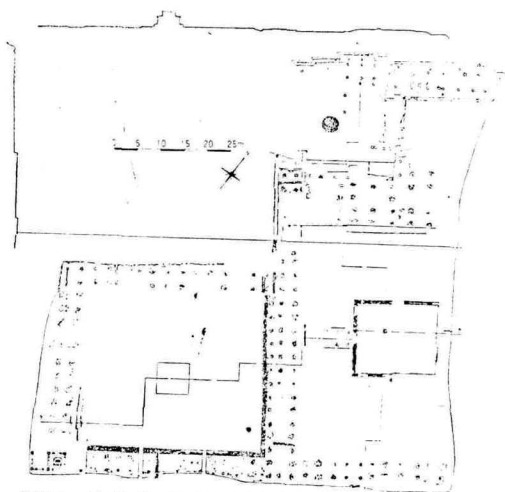


圖18. 高仙寺 伽藍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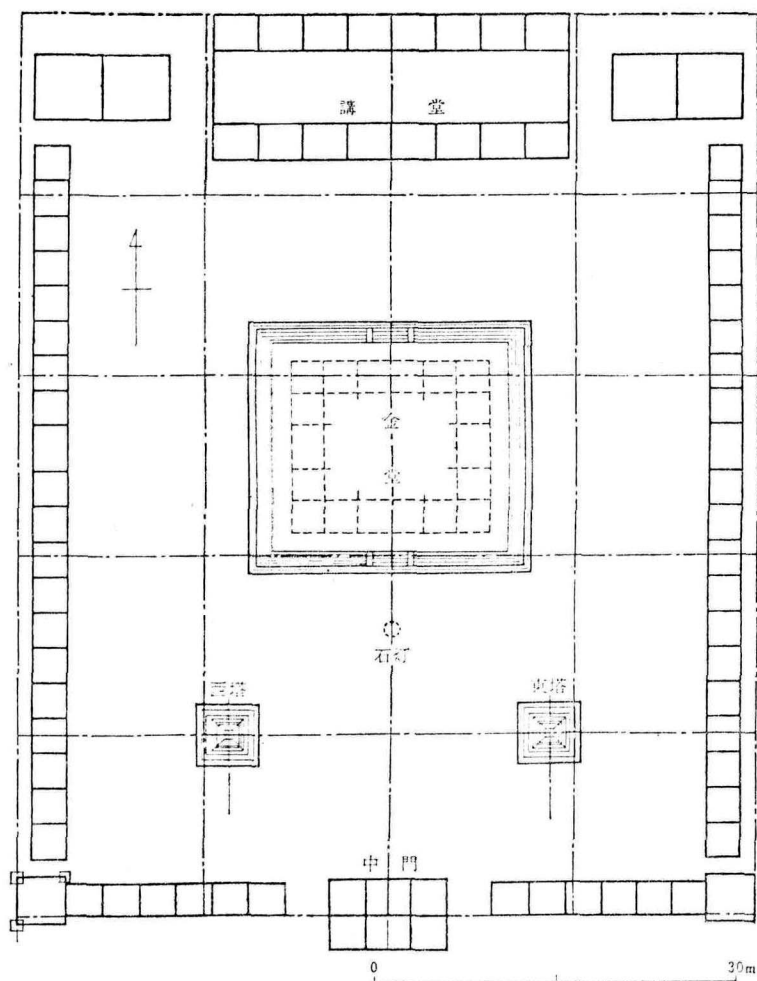


圖19. 千軍里 廢寺 伽藍 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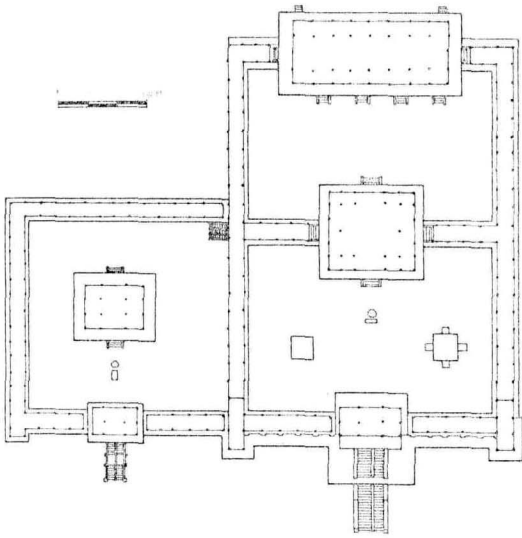


圖20. 佛國寺 伽藍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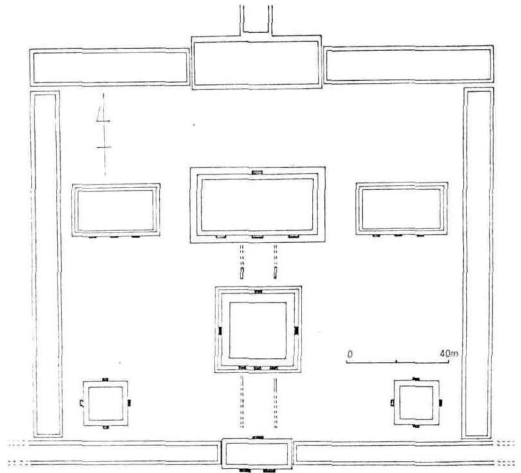


圖21. 皇龍寺 伽藍 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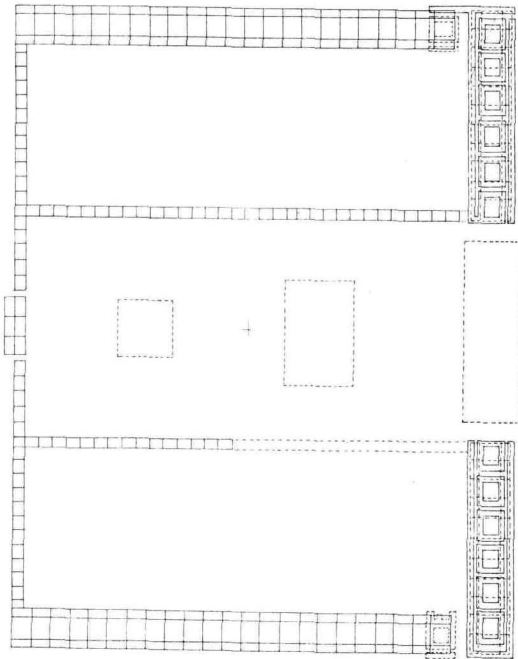


圖22. 皇龍寺 創建伽藍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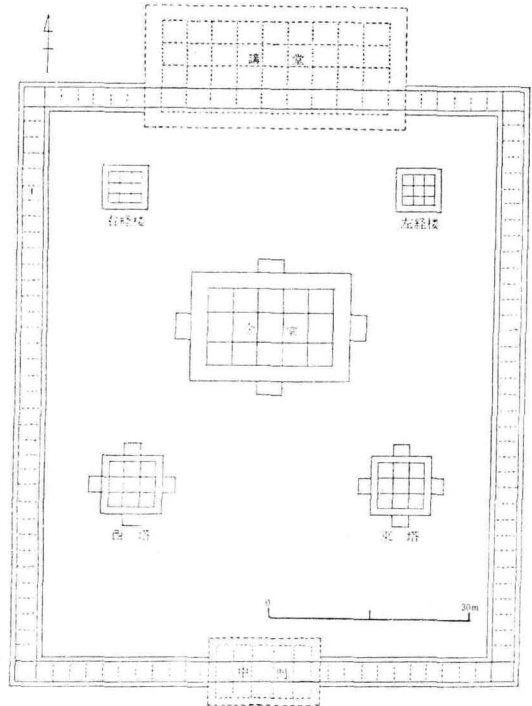


圖23. 四天王寺 伽藍 復元圖

新羅時代に創建된 寺刹에 있어서도 千軍里廢寺 以前에 創建된 寺刹에 서는 古新羅時代부터의 技法이나 形式을 固守하면서 部分的으로 變化시 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重建 佛國寺에서 비로소 伽藍에 北廻廊이 나타나고 建物基壇의 形式이나 石階段 側石의 構成, 西塔의 塔區의 性格 등에서 顯著한 變化를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千軍里廢寺 以前에는 古新羅時代의 傳統의 繼續이었고 重建 佛國寺에서 새로운 建築的 要素를 導入하게 된 事實을 意味하며 新羅의 寺刹建築은 重建 佛國寺에서 一大轉換期를 맞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八世紀 中葉에 이루어진 重建 佛國寺에서 새로운 建築的 樣相이 나타 나게 된 原因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解明할 수 있는 資料를 얻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原因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을 것 이다. 그 하나는 新羅人의 蓄積된 創造的 意識의 爆發的인 具現이라는 것 이며, 또 하나는 八世紀 中葉에 이르러 비로소 唐의 建築의 本格的인 收容이라는 것이다. 萬一 重建 佛國寺에서의 建築的인 一大轉換이 唐 建築의 收容에 原因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事實에 留意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雁鴨池에서 出土된 調露二年(六八〇)銘寶相 華文博으로 代表되는 統一新羅時代 極初期의 瓦博類의 文樣에서 뚜렷한 唐樣式的 影響을 確認할 수 있는데 建築의 技法 形式에 唐의 影響이 나 타나는 것은 그보다 七〇餘年이나 늦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事實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적어도 建築의 技法이나 樣式的 變遷에 있어서 는 變하기 쉬운 要素와 變하기 어려운 要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瓦博類의 文樣에 唐의 影響이 뚜렷하다고하여 곧바로 建築全體가 唐의 影響을 받았다고 單純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建築의 架構技法이나 構造的 樣式 등은 瓦博類보다는 훨씬 늦게 影響을 받게 된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事實은 美術史研究, 특히 構造物이나 形式樣相이 對象이 되는 研究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일 이며 이點에 대하여 깊이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① 皇龍寺 創建伽藍에 있어서의 金堂이나 塔에 關한 古文獻 記錄이 없다. 그 러나 完成된 創建伽藍에도 當然히 金堂이나 塔이 있었을 것이다.
- ② 文化財管理局「皇龍寺」本文篇, 伽藍配置項 參照.
- ③ 「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法敏條.
- ④ 「三國遺事」卷第四, 虵福不言條.
- ⑤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末年條.
- ⑥ 「三國遺事」卷第二, 萬波息笛條.
- ⑦ 「高仙寺址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 p. 22, 23參照 一九七七.
- ⑧ 米田美代治「慶州千軍里寺址及三層石塔調查報告」(一九三七年)古蹟調查 報告, p. 71(筆者譯, 括弧內 筆者 補充).
- ⑨ 上揭註七, p. 26 參照.
- ⑩ 「佛國寺」文化財管理局, p. 55 參照, 一九七六.
- ⑪ 藤島亥治郎「朝鮮建築史論(其一)」《建築雜誌》日本建築學會, 一九三〇年 二月.
- ⑫ 前揭註七, p. 75 參照.
- ⑬ 前揭註八, 圖版八四, 伽藍配置復原圖參照.
- ⑭ 前揭註七, p. 26 參照.
- ⑮ 前揭註八, p. 71~72 參照.
- ⑯ 一九五九年發掘時에는 講堂址 周邊에는 民家가 들어서 있어 極部的인 發掘에 그쳤으며, 그 結果 講堂 앞 柱間에 一致되는 廻廊이 있는 것으로 判斷 되었으나 一九八〇年の 調査에서 北廻廊이 存在하지 않고 別途 建物이 있음 이 確認되었다.
- ⑰ 前揭註七, p. 78 參照.
- ⑱ 前揭註七, p. 25~26.
- ⑲ 前揭註七, p. 32 參照.
- ⑳ 上同.
- ㉑ 前揭註七, p. 79~80 參照.
- ㉒ 拙稿「三國時代의 木造建築」《考古美術》一五〇輯, p. 32 參照, 韓國美術 史學會 一九八一, 七.
- ㉓ 前揭註二二, p. 20~22 參照.
- ㉔ 拙稿「典型樣式的 石塔과 彌勒寺址 石塔」《馬韓百濟文化》創刊號, 圓光大 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p. 108 參照, 一九七五.
- ㉕ 前揭註二二, 參照.
- ㉖ 上同.
- ㉗ 前揭註八, p. 72(筆者譯).
- ㉘ 前揭註一一, 參照.